Bobcat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저주 재연될까

송고시간 I 2008-10-08 11:57











김대호 기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저주 재연될까>"국내은행 재무상태 환란때완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금융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 국내 은 행주들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과거처럼 주가 폭락사태가 재연될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2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국내 경제약화로 신용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이어 전날 부산은행, 대구은행의 재무건전성등급 전망을 역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전날 글로벌 유동성 위기 로 한국의 은행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평가 속에 이날 오전 11시40분 현재 우리금융[053000]은 6.09% 급락하고 있고 신한지주 [055550] -6.57%, 하나금융지주[086790] -7.22%, 기업은행 [024110] -7.27%, 외환은행[004940] -3.79%, 대구은행 [005270] -7.22%, 부산은행[005280] -5.18% 등으로 동반 하락 하고 있다.

전북은행[006350]은 최근 한국종합캐피탈과 삼양사 등이 최대주주 자리를 놓고 지분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2.19% 상 승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10일 KB국민지주로 재상장을 위해 거래정지된 상태다.

이날 은행주의 약세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보다는 글로벌신용위기로 인한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와 선진국 금융주들 의 폭락세가 주요인이지만 '제2의 외환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투자심리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글로벌유동성 문제가 예상대로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은행주들의 재무건정성이 약화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은행주들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쓰레기채권으로 불리는 `정크본드' 수준 으로 낮춰 주가가 폭락했다가 나중에 신용등급 회복으로 단기간에 다시 폭등한 사례가 있다.

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월 1만8천원 수준이었으나 1998년 9월엔 2천400원대로 폭락했다가 이후 주 가가 다시 빠르게 반등해 1999년 7월에는 2만700원대로 뛰어올랐다.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에 따라 짧은 기간에 `천 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었다.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도 환란 당시 외환은행과 비슷한 급등락 현상을 보였다.

국민은행과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새로 탄생된 금융 기관들이라 환란 당시 신용등급이나 주가 움직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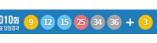
글로벌유동성 문제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책공조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 잘못된다면 10년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귀화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전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추천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성병수 애널리스트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외환위기 수준 으로 떨어질 정도로 재무상태나 영업상태가 취약하지는 않다. 다만 경기부진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과 기업도산 등은 우려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10/08 11:5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흔들림 없이 손잡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22 ^철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58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47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 37 동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31 힐예정"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











sns **f**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